7조 워크숍 보고서

팀명: B3AR (배아)

-배아가 가진 생명의 초기 단계라는 의미와 곰을 뜻하는 bear을 모두 내포하고자 팀명을 지었다

활동 일지: 10/30일 아이디어 회의 , 작업 일정 조율 , 재료 선정

 11/6일 스케치 작업, 채색 작업

 11/8일 팀 명(B3AR 배아) 확정

 11/11일 활동 보고서 완성

 11/13일 시유 작업 및 가마작업

제작 목적 : 피상적으로 보이는 현상(곰)이 아니라 한 걸음 더나아가서 그 이면의 본질(그림자, 아기, 생명)의 모습을 보아라, 곰에 비친 그림자에서 생명의 꿈틀거림을 보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작품을 제작 하였다.그리고 이번 도예와 철학의 융합을 꿈꾸는 워크숍의 취지가 단군 신화가 가진 신과 인간과의 이질적인 것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단군 신화를 착안하였다. 또한 이번 워크샵 주제인 곰이 가진 한국 고유의 뿌리깊은 토테미즘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단국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하여 지금껏 쉬지 않고 달려온 자랑스러운 모교 단국대학교가 더욱 생명력 있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작품 제작의 의의로 담았다.

작품의 의미 : 주어진 3개의 판을 연결하고 도자기 형태의 프레임 안에서 하단에 웅크린 곰 형상이 있고 그 그림자로 웅크린 아기(태아)의 그림자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를 형상화 하였다.이러한 작품의 특징이 가진 의미는 한국의 고대 신앙 단군신화에서 웅녀가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사람이 된 신화에서 죽음(동굴)으로부터의 부활, 생명(동굴을 생명이 잉태되는 장소로 비유)의 재탄생, 아이가 자궁 속 어둠에서 세상의 빛으로 나오는 이미지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빛으로 나옴으로서의 유사함에서 재탄생이라는 동일성을 포착하여 이를 표현하고자 하였다